



KTC 수출거점 특화섬유정보

Korea Textile Center

제336호

아래 정보는 상해지사의 김상중 지사장이 정리한
중국의 섬유시장 동향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섬유시장 동향

1. 상하이 인터넷 소매업 43% 성장

1/4분기 상하이의 소비품 소매총액이 동기대비 7.8% 성장한 가운데 인터넷 거래 소매총액은 43.1%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상하이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4분기 상하이의 상품소매총액은 21,330.45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5.8% 성장하고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2,366.03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 품목별로는 식품 601.23억 위안으로 4.9% 증가, 의류 369.84억 위안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소매총액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통 판매방식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4분기 상하이의 무점포 소매총액은 268.08억 위안으로 38.7% 성장했고 이 가운데서 인터넷 판매금액이 231.64억 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43.1%의 성장을 거뒀다.

2. 중국 의류, 화장품의 소비세 조정과 내수 활성화

중국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일부 수입소비재의 관세를 인하하고, 의류 및 화장품 소비세를 조정하며 면세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소비를 늘려 안정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자오핑(赵萍) 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부주임은 “이번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면 소비증가율은 0.5~1%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리커창 국무총리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소비 확대는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조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 업그레이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수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공정한 수출입 경쟁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욕구가 높은 수입 소비재를 늘리는 한편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제품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내수를 늘리고, 고용을 보장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회의는 과학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 지었다고 중국 정부망(中国政府网)은 28일 전했다.

첫째, 국내소비 수요가 높은 일부 해외 일용소비재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수입 관세 인하를 시범 실시하며, 점차 관세 인하 상품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세제개혁에 맞춰 약세서리,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정책을 개선하고, 세금징수 범위, 세율 등을 조정한다.

셋째, 수입 면세점 증설, 면세품종 확대, 일정수량의 면세 구매한도 확대, 국내 소비자의 해외상품 구매 간편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넷째, 해외 여행객의 쇼핑통관 및 세금환급 간소화 및 수입품 납세신고를 엄격히 시행한다.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검역검사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수입 절차 시 부적절한 수수료 수취 행위를 없앤다.

다섯째, 중국상품 브랜드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성장을 지원해 온·오프라인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모조품을 엄격히 단속해 소비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을 활성화 한다.

자오핑 부주임은 “과거 중국의 안정성장은 대부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결합한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경제의 하행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화된 소비의 단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투자의 안정화와 소비의 안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KOREA TEXTILE CENTER